

中語中文學 第 85 輯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박성우 · 문치웅

韓國中語中文學會

2021年 9月

#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박 성 우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문 치 응 흥익재단 연구원장

## 목차

1. 서론
  2. 출토문헌에 나타난 '五行'
    - (1) 갑골문의 '五行'
    - (2) 서주 금문의 '五行'
  3. '五行'의 의미 파생 과정 분석
  4.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五行의 '五'는 보편적으로 다섯 가지 요소 즉, 현재 흔히 인식하는 水·火·木·金·土를 말하고, 고대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이 다섯 요소를 통하여 자연현상과 인간사의 심오한 작용을 풀이하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자연·사회·정신 등의 형성과 변화를 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자연계와 인간계에 속하는 모든 분야와 사물의 근본·변화·질서에 대하여 설명 및 운영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五行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전래 문헌은 『尙書』이며, 「夏書」 편에 수록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의 高見를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세심한 평가에 감사드린다.

「甘誓」: “왕이 말하기를 ‘아! 六軍에 종사하는 사람아. 내가 너에게 고하노라. 有扈氏가 五行을 업신여기며 三正을 버려 天이 그들에게 내린 명을 끊으려고 하니, 지금 나는 天의 벌을 삼가 받들어 행하려고 한다.’(王曰: ‘嗟! 六事之人, 予誓告汝: 有扈氏威侮五行, 怠棄三正, 天用剿絕其命, 今予惟恭行天之罰.’)”

위 「甘誓」의 내용을 간추리면, ‘有扈氏가 五行을 업신여기며 三正을 버려 왕이 天의 명령을 받아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으로 五行이 고대 국가 중대사에 중요 역할로 작용했던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五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고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며, 어떠한 역할이나 용도를 나타내는지 더 이상의 단서나 해석은 살피볼 수 없다. 특히 五行을 업신여겼다고 하였는데, 현재 인식하는 이 다섯 요소를 어떻게 업신여겼다는 것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이해가 쉽지 않다. 이후 『周書』편을 통하여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洪範」: “箕子が 이에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옛날 鯀이 홍수를 막으려 했으나 五行의 순서를 어지럽게 배열해 놓았다. 帝가 진노하여 洪範九疇를 하사하지 않으니 彝倫이 이에 무너지게 되었고, 鯀이 사형에 처하게 되어 禹가 이에 계승받아 등용되니 天이 그제야 禹에게 洪範九疇를 하사하고, 彝倫이 베풀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箕子乃言曰: ‘我聞在昔, 鯀堙洪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 不畀洪範九疇, 彝倫攸斁. 鯀則殛死, 禹乃嗣興, 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攸敘’).”

「洪範」: “첫 번째, 五行은 첫째는 水요, 둘째는 火요, 셋째는 木이요, 넷째는 金이요, 다섯째는 土이다. 水는 적시며 아래로 흐르고, 火는 불꽃을 튀기며 위로 오르고, 木은 굽고 곧으며, 金은 모양이 유지되고 바뀌며, 土는 이에 심고 거둔다. 적시며 아래로 흐르는 것은 짠맛을 내고, 불꽃을 튀기며 위로 오르는 것은 쓴맛을 내고, 굽고 곧은 것은 신맛을 내고, 모양이 유지되고 바뀌는 것은 매운맛을 내고, 심고 거두는 것은 단맛을 낸다(一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위 『洪範』에서 五行에 쓰인 다섯 가지 요소의 기본적인 특성과 기능 원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풀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尙書』가 五行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五行이 언제부터 출현했고, 최초 어떠한 의미에서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전국시기 말엽 추연(鄒衍)이 음양오행설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립했다는 사실은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단지 음양오행에 관련하여 정리를 시도했을 뿐 기원을 창시했거나 최초 성립된 의미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五行의 최초 의미와 변천 과정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五行의 발단과 오랜 기간 의미가 변화하며 정착된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五行은 동아시아 문화의 골간으로 발전 역사는 매우 유구하다. 商代를 대표하는 갑골문에서 이미 五行에 대한 기초 인식을 살펴볼 수 있고, 周代 청동기 명문에서 또한 五行과 관련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시기 출토문헌에서 五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이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토 분석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五行 체계화에 대한 기존 주장을 보면, 商代 후기에 생성되어 전국 말기에 기본적인 체계가 완성되었고, 西漢 중기까지 계속하여 보충·변화·개선되며 의미 체계가 정형화되었다고 한다.<sup>1)</sup> 또한 五行의 최초 성립된 의미에 대한 기존 견해를 간략히 정리하면, ‘五材說’, ‘五氣說’, ‘五星說’, ‘五季說’, ‘月令說’, ‘五官說’, ‘五工說’, ‘五方說’, ‘五德說’, ‘五教, 五倫, 五典’ 등을 나열할 수 있다.<sup>2)</sup>

먼저, 五行의 파생적 내용들을 포함하여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전래문헌으로 前漢시기 劉安의 『淮南子』와 董仲舒의 『春秋繁露』를 제시할 수 있으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淮南子·天文訓』: “무엇을 오성이라고 하는가? 동방은 목이다. 그곳의 帝는 태호이고 그 보좌는 구망이 하며, 컴퍼스(規)를 쥐고 봄을 다스린다. 그 신은 세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창룡, 그 소리는 각, 그 날을 갑을이다. 남방은 화이다. 그

1) 彭華, 『陰陽五行研究(先秦篇)』, 上海,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년, 1-2쪽.

2) 張玉清, 「試論五行起源於上古立杆測影特殊點位的軌迹週期」, 『漢字與歷史文化』第16期, 北京, 北京國際漢字研究會, 2019년.

곳의 帝는 염제, 그 보좌는 주명이 하며, 저울(衡)을 쥐고 여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형혹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주조, 그 소리는 치, 그 날은 병정이다. 중앙은 토이다. 그곳의 帝는 황제이고, 그 보좌는 후도가 하며, 먹줄(繩)을 쥐고 사방을 제어한다. 그 신은 진성(鎭星)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황룡, 그 소리는 궁, 그 날은 무기이다. 서방은 금이다. 그곳의 帝는 소호이고, 그 보좌는 옥수가 하며, 자(矩)를 쥐고 가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태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백호, 그 소리는 상, 그 날은 경신이다. 북방은 수이다. 그 帝는 진옥, 그 보좌는 현명이 하며, 저울추(權)를 쥐고 겨울을 다스린다. 그 신은 진성(辰星)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현무, 그 소리는 우, 그 날은 임계이다(何謂五星? 東方, 木也, 其帝太皞, 其佐句芒, 執規而治春; 其神爲歲星, 其獸蒼龍, 其音角, 其日甲乙. 南方, 火也, 其帝炎帝, 其佐朱明, 執衡而治夏; 其神爲熒惑, 其獸朱鳥, 其音徵, 其日丙丁. 中央, 土也, 其帝黃帝, 其佐後土, 執繩而制四方; 其神爲鎮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 西方, 金也, 其帝少昊, 其佐蓐收, 執矩而治秋; 其神爲太白, 其獸白虎, 其音商, 其日庚辛. 北方, 水也, 其帝顓頊, 其佐玄冥, 執權而治冬; 其神爲辰星, 其獸玄武, 其音羽, 其日壬癸.)”

『春秋繁露·五行之義』: “天에는 五行이 있다. 첫째를 木, 둘째를 火, 셋째를 土, 넷째를 金, 다섯째를 水라고 한다. 木이 五行의 시작이고, 水가 五行의 끝이며, 土가 五行의 중앙이다. 이것은 天이 정한 순서이다. 木은 火를 낳고, 火는 土를 낳고, 土는 金을 낳고, 金은 水를 낳고, 水는 木을 낳으니, 이는 부자 관계와 같다. 木은 왼쪽, 金은 오른쪽, 火는 앞, 水는 뒤, 土는 가운데에 자리 잡은 것은 부자의 차례와 같으며, 서로 도와 혜택을 받게 한다(天有五行: 一曰木, 二曰火, 三曰土, 四曰金, 五曰水. 木, 五行之始也. 水, 五行之終也. 土, 五行之中也. 此其天次之序也.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此其父子也. 木居左, 金居右, 火居前, 水居後, 土居中央, 此其父子之序, 相受而布).”

두 문헌 기록은 五行의 기본 원리를 단순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벗어나고대시기 생활 한 공간에 안착되어 많은 분야를 다섯 형태로 배당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淮南子·天文訓』의 기록은 방위를 시작으로 물질, 帝, 보좌, 사시, 동물, 소리 등을 배당한 수평적 관계로 서술되었고, 『春秋繁露·五行之義』의 기록

은 물질적인 속성에 따라 상생을 설명한 수직적 관계로 서술되었다. 다시 말하면, 五行의 활용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文子·微明』의 “天에는 五方이 있고, 地에는 五行이 있다. 聲에는 오음이 있고, 物에는 오미가 있으며 色에는 오장이 있고, 人에는 오위가 있다(天有五方, 地有五行, 聲有五音, 物有五味, 色有五章, 人有五位).”라고 하였고, 『黃帝內經·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황제가 물었다. 天에는 五行이 있어 五位를 다스리며, 이로써 寒, 暑, 燥, 濕, 風이 발생합니다.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어 오장의 기를 변화하며, 이로써 喜, 怒, 思, 憂, 恐이 발생합니다(黃帝問曰: 天有五行, 御五位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 五行은 고대시기 지역적 방위와 그 영역, 기본 色과 소리, 味에 대한 정리, 사람들의 지위 구분, 인체의 변화 등을 정의하고 관리를 위한 기본으로 활용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시기 五行의 전체적인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의미 근원에 대하여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용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五行의 발전된 형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다섯 요소를 토대로 한 五行의 최초 의미는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근원적인 五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한 심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전래문헌을 중심으로 五行 연구를 진행한 틀을 벗어나 출토된 선진시기 문헌 즉, 출토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기존의 전래문헌을 통해 五行을 연구한 국내의 논문은 본 지면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대부분 출토자료보다 후대의 문헌을 참고하였기에 연구에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출토자료 연구는 후대의 가공을 거치지 않아 당시 의미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도로 판단된다.

이에 五行이 아직 확고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인 商代를 대표하는 갑골문과 西周시기의 금문을 집중적으로 수집 검색하여 용례를 살펴보고 五行의 골간과 구축, 변천 과정을 추적 분석해 보도록 한다.

## 2. 출토문헌에 나타난 ‘五行’

五行과 관련된 내용은 고대 문헌의 여러 분야에 각각 다른 형태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五行의 시원과 형성에 관한 국내외 여러 발표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五行은 水·火·木·金·土라는 전국시대 이후 정의된 개념을 응용하여 역학·철학·천문학·성명학·사주학 등의 학문에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대 시기에는 사회·문화 곳곳의 여러 분야가 다섯 가지 형태로 배당되어 풀이되었고, 심지어 현재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다섯 요소에 기반 하지 않은 다른 형태로 五行이 명명된 용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新書·卷第八·六術』에서 ‘사람은 인, 의, 예, 지, 신이라는 행위가 있다(人有仁、義、禮、智、信之行)’와 출토된 馬王堆帛書에서 ‘仁, 知, 義, 禮, 聖’<sup>3)</sup>이라는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五常을 五行으로 불렀던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이를 근거한다면 五常 즉, 사람의 기본적인 도덕과 관련된 풀이가 五行의 기본 형태로도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五行의 본래 형태와 확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작업으로 중국 殷商시기와 西周시기 출토문헌의 용례를 수집, 분석하여 그 쓰임을 파악하고자 한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갑골문과 금문의 기록에 나타나는 ‘五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면 수집하여 분류하고, 그 의미를 제시, 구체화한다. 또한 전래문헌의 용례를 보충 참고하고 시간적 선후의 의미 확대와 변천,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五行 활용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 (1) 갑골문의 ‘五行’

현재 확인되는 갑골문 자료에서 ‘五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그 요소인 水·火·木·金·土에 대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고, 五方 또는 四方과 같은 五行의 방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과거 胡厚宣은 갑골문에서 확인

3) [日]池田知久 著, 王啓發 譯, 『馬王堆漢墓帛書五行研究』, 北京, 線裝書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년, 72쪽.

할 수 있는 五方과 관련된 용례를 통하여 ‘中國’이라는 국가 명칭의 기원을 연구하였고, 五行 관념의 原型이나 발생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특이한 용례를 제시하였다.<sup>4)</sup> 五方은 다섯 개의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五行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고,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좋은 단서이다.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辛亥卜, 內貞: 帝于北方曰(死)風曰(役), 𠄎年. (『合』14295.7)

신해일에 균열을 내어 내가 점을 쳤다. 死으로 일컫는 北方과 役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辛亥卜, 內貞: 帝于南方曰完, 風夷, 𠄎年. (『合』14295.8)

신해일에 균열을 내어 내가 점을 쳤다. 完으로 일컫는 南方과 夷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貞: 帝于東方曰析, 風曰荔, 𠄎年. (『合』14295.9)

점치기를, 析으로 일컫는 東方과 荔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貞: 帝于西方曰彝, 風曰棗, 𠄎年. (『合』14295.10)

점치기를, 彝로 일컫는 西方과 棗으로 일컫는 風에게 帝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위 갑골 복사는 제사를 거행하는 공간에서 동서남북 네 방향과 바람을 호칭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제사를 거행하는 공간과 사방 즉, 영토적 관점을 다섯 공간으로 인식한 표현인 듯하다. 다시 말해서, 殷商시기에 이미 五行의 전신이나 일부 형태로 볼 수 있는 五方이라는 구체적인 형태가 제사 의식 행위로부터 구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五方에 대한 기록은 후대 五行 근원의 원

4) 胡厚宣, 「論五方觀念及「中國」稱謂之起源」, 『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 濟南, 齊魯大學國學研究所, 1944년.



시적인 형태로 추측할 수 있는 동시에 사방에게 명칭을 부여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한 부분은 萬象을 다섯 형태로 배당한 후대 발전된 五行의 초기 형태 자료로 파악된다. 五方과 관련된 또 다른 용례를 보도록 한다.

己巳王卜, 貞(今)歲商受(年). 王<sup>四</sup>曰: 吉. (『습』36975.1)

기사일에 왕이 균열을 내어 점치기를, 올해 商은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왕이 점괘를 판단하여 말하길: 길하다.

東土受年. (『습』36975.2)

동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南土受年. 吉. (『습』36975.3)

남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西土受年. 吉. (『습』36975.4)

서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北土受年. 吉. (『습』36975.5)

북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위 용례는 모두 하나의 갑골에 새겨진 내용으로 점치는 행위가 이뤄지는 중심지라는 商에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모종의 수확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기술되었다. 여기서 두 부분을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五行의 원류는 동서남북과 중앙을 의미하는 五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商이 바로 자신의 위치가 사방의 중심이 되어 점술을 진행하였다는 부분이다. 전자는 더 많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고, 후자는 또 다른 갑골 용례를 통해서 당시에 이러한 인식이 바탕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巳卜, 王貞: 于中商乎禦方. (『습』20453.1)

□사일에 균열을 내어 왕이 점치기를 中商에서 敵方을 방어하라.

庚辰卜, 𠄎 中商. 三 (『습』20587)

경진일에 균열을 내어 中商에서 제사를 지냈다. 三.

戊寅卜, 王貞: 受中商年. 十月. (『습』20650.3)

무인일에 균열을 내어 왕이 점치기를 中商이 수확을 얻을 것이다. 十月.

勿于中商. 一 (『습』7837)

中商으로 가지 말라.

위 제시한 『습』20453.1의 문장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습』20450의 ‘임오일에 균열을 내어 呂가 점치기를 商에서 敵方을 방어하라(壬午卜, 呂貞: 乎禦方于商).’라는 용례를 통하여 中商은 즉, 商을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胡厚宣은 商代에 이미 東·西·南·北·中이라는 五方 개념이 존재하였다는 견해를 밝혔다.<sup>5)</sup> 五行이 최초 五方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五行 관념이 이미 안정되는 과정 속에 五方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갑골 용례를 통하여 일찍이 은상시기부터 다섯 방향을 중시한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이는 예로부터 농업 중심의 사회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에 의하여 각 방위를 중시하는 형태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sup>6)</sup>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전래문헌 『左傳』 成公13年の [‘국가의 대사는 제사와 전쟁에 있다(國之大事, 在祀與戎).’]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은상시기 제사와 전쟁 또한 중시되었고, 상대말기 周祭라는 翬, 祭, 𠄎, 𠄎, 𠄎 등의 五種祭祀가 성행하였다는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sup>7)</sup> 먼저, 각 명칭에 대하여 정리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5) 胡厚宣, 「論五方觀念及「中國」稱謂之起源」, 『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 濟南, 齊魯大學國學研究所, 1944년, 385쪽.

6) 은상시기 갑골문에서 농업과 관련된 용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년, 235-279쪽.

翬: 조류의 깃털을 들고 춤을 추며 진행하는 제례

祭: 육류를 제물로 진행하는 제례

𩇛: 곡물을 제물로 진행하는 제례

𩇛: 祭, 彡 등과 함께 진행되는 종합 제례

彡: 악기를 사용하는 제례

五種祭祀는 일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조상에게 끊임없이 순환하며 제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김경일은 祖甲의 五種祭祀를 원시적이지만 五行적 사유 방식의 최초 구체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갑골문에서 五種祭祀와 관련된 용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한다.

乙丑卜, □貞: 王賓報乙翬, 亡尤. (『合』22689)

乙丑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점치기를 왕이 친히 報乙의 혼령을 맞으며 翬 제례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 것이다.

甲辰[卜], 大貞: 翬乙巳祭于小乙亡它. 在九月. (『合』23128)

甲辰일에 균열을 내어 大가 점치기를 다음날 을사일에 小乙의 혼령을 맞으며 祭 제례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 것이다. 9월에

壬申卜, □貞: 王賓示壬𩇛亡凶. (『合』22706)

壬申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점치기를 왕이 친히 示壬의 혼령을 맞으며 𩇛 제례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 것이다.

7) 李立新, 『甲骨文中所見祭名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003년, 13-14쪽.

8) 김경일, 「殷代 '出組' 5種祭祀 관련 갑골문 텍스트를 통한 유교 조상숭배 문화의 기원 연구」, 『中語中文學』第41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7년, 31쪽.

9) 김경일, 「殷代 갑골문을 통한 '五行'의 문화적 기원 연구」, 『中語中文學』第38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년, 135쪽.

[甲]申卜, [行]貞: 王賓上甲<sup>10</sup>, 亡尤. 在□[月]. (『습』22682)

甲申일에 균열을 내어 行이 점치기를 왕이 친히 上甲을 맞으며 <sup>10</sup> 齎 제례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 것이다.

乙酉卜, 尹貞: 王賓祖乙<sup>10</sup>, 亡[尤]. (『습』22723.6)

乙酉일에 균열을 내어 尹이 점치기를 왕이 친히 조상 祖乙을 맞으며 <sup>10</sup> 之의 제례를 지내면 우환이 없을 것이다.

周祭 즉, 五種祭祀의 의미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殷王 上甲을 시작으로 아래 선왕과 직계 亡母까지 반복 순환하며 제사를 거행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1년을 360일 또는 370일로 여겼던 殷商시기에 쫘와 之는 단독으로, 祭, 亥, 齎는 서로 함께 묶어 쫘-祭, 亥, 齎-之 등의 세 제사로 조직하여 반복적으로 거행하는 제사라고 하였다.<sup>10</sup> 상대말기 어떠한 연유로 五種祭祀가 성행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다섯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지 않고, 사회 범위를 일정하게 체계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 갑골문에서는 五臣에 대한 용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辛亥卜□五臣□. (『습』30391.1)

辛亥일에 균열을 내어 □五臣□.

王又(侑)歲于帝五臣正, 隹亡雨. (『습』30391.2)

왕이 帝의 五臣에게 侑歲 제례를 지내면, 비가 없을 것이다.

□<sup>10</sup>又(侑)于帝五臣, 又(有)大雨. (『습』30391.3)

帝의 五臣에게 侑 제사를 고하면 큰 비가 있을 것이다.

10) 李立新, 『甲骨文中所見祭名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003년, 13-14쪽.

□帝五臣□. (『合』31061)

□帝의 五臣 □.

庚午貞: 施(蝗)大(擧), 于帝五珏(工)臣宁. 在祖乙宗卜.<sup>11)</sup> (『合』34148)

庚午일에 침치기를 메뚜기가 크게 일어나는데, 제 五臣에게 宁 제사를 거행해도 될 것이다. 祖乙의 종묘에 균열을 내다.

다섯 신하의 직책과 업무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帝五臣正’, ‘帝五珏(工)臣’<sup>12)</sup>으로 기록한 구절과 다섯 신하에게 직접적으로 歲, 侑 제사를 거행했다는 기록에 근거한다면, 다섯 신하들을 政事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 듯하다. 『論語·泰伯』을 보면, “순이 신하 다섯 사람을 두어 天下를 다스렸다(舜有臣五人, 而天下治).”라고 하여 何晏의 注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禹), 직(稷), 설(契), 고요(皐陶), 백익(伯益)이라 하였다(孔曰: 禹, 稷, 契, 皐陶, 伯益).’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비교적 늦은 魏 시기의 주석이지만, 갑골에 나타난 五臣을 특수한 직책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구절이다. 일찍이 胡厚宣은 商代에 각각의 방위에 제사를 거행하였다는 卜辭 용례를 통하여 帝五臣과 帝五工臣은 五方의 신이며, 각 지역 인간사의 운명을 주관하였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sup>13)</sup>

五臣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래문헌의 기록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左傳』 昭公17年에서 “오치는 다섯 가지 공예를 맡은 장관으로 기물을 만들어 이롭게 하고, 도량을 바로 잡아 백성들의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관직이다(五雉爲五工正, 利器用, 正度量, 夷民者也).”라고 하여, 杜預 注를 보면, ‘五雉의 雉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西方의 평을 준치라고 하고, 東方의 평을 치치라고 하며, 南方의

11) 문자 고석에 대하여 王進鋒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王進鋒, 「卜辭“五臣”與《史記·封禪書》“九臣”解」, 『考古與文物』第6期, 西安, 陝西省考古研究所, 2012년.

12) 두 구절의 의미에 대하여 王進鋒이 전래문헌 기록에 근거 서술하여 본고에서 중복 서술하지 않는다. 王進鋒, 「卜辭“五臣”與《史記·封禪書》“九臣”解」, 『考古與文物』第6期, 西安, 陝西省考古研究所, 2012년.

13) 胡厚宣, 「殷卜辭中的上帝和王帝(上)」, 『歷史研究』第9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59년, 47-50쪽.

핑을 적치라고 한다. 北方의 핑을 희치라고 하고, 이수와 낙수 남쪽의 핑을 휘치라고 한다(五雉, 雉有五種, 西方曰鷓雉, 東方曰鷓雉, 南方曰翟雉, 北方曰鷓, 伊洛之南曰翟).’라고 하였다.

또한 『左傳』 昭公17년의 다른 구절에서는 “그러므로 새로써 기록하여 벼슬을 새의 이름으로 命名하였으니, 鳳鳥氏는 歷正(歷法을 맡은 長官)이다(故紀於鳥, 爲鳥師而鳥名, 鳳鳥氏歷正也).”라고 하여, 杜預 注를 보면, ‘鳳鳥는 天時를 알기 때문에 鳥로써 歷正의 官名으로 삼은 것이다(鳳鳥知天時 故以名歷正之官).’라고 하였다. 위 문헌과 주석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五雉는 다섯 방향의 방위를 담당하는 관직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左傳』 昭公17년에 기록된 ‘다섯 가지 공예를 맡은 장관(五工正)’, ‘鳳鳥氏는 歷正이다(鳳鳥氏歷正也)’라는 문장 구절과 갑골문 『合』3039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절 ‘帝의 五臣(帝五臣正)’의 문장 표현이 동일하여 갑골문에 기록된 五臣 또한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を 각각 담당하는 관직명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은상시기 갑골문에는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 그리고 五種祭祀, 五臣 등 다섯 가지로 조직된 형태를 볼 수 있는 동시에 모두 다섯 공간이라는 방위를 중시하는 형태로 서술되었다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五行의 다섯 요소의 조화로 우주 만물의 생성과 자연계의 운동을 통한 상생을 설명하였거나 철학적 혹은 도덕적, 천문학적 영역과 결부하여 五行을 언급하는 용례는 확인할 수 없는 반면에 단지 제사 거행이나 다섯 방향의 대상을 강조한 단순히 영토적·지리적 관점의 五方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초 五行의 기원이 다섯이라는 분류법을 통한 위치 영역의 강조 혹은 생활상의 어떠한 분류 편의를 위하여 발생되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분류법이 시간이 지나며 확대되었고, 五材를 이용한 五行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淮南子·天文訓』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섯 동물 즉, 오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도록 한다. 전한 시기 劉安이 저술한 『淮南子』의 「天文訓」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수는 다섯 종류의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동방은 창룡(東蒼龍), 남방은 주조(南朱鳥),<sup>14)</sup> 중앙은 황룡(中黃龍), 서방은 백호(西白虎), 북방은 현무(北玄武)가 각각 배당되었다. 흥미롭게도

『淮南子』보다 이전 문헌으로 보이는 전래문헌에서는 위 동일한 부류의 五獸가 중앙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방에 각각 배치되었다. 예를 들어, 『吳子·治兵』에서 “반드시 왼쪽은 靑龍, 오른쪽은 白虎, 앞은 朱雀, 뒤는 玄武이다(必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와 『禮記·曲禮上』에서 “앞은 朱鳥, 뒤는 玄武이고, 좌는 靑龍 우는 白虎이다(前朱鳥而後玄武, 左靑龍而右白虎).”라는 용례를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漢代 이전 전래 문헌에서는 四獸 즉,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을 상징하는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 이 네 동물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색깔을 의미하는 靑, 白, 朱, 玄을 제외하면, 龍, 虎, 雀, 武로 분리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네 동물은 은상시기 갑골문에서 모두 각각 邦國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살펴보면:

## (1) 龍

貞: 王夷(惠)龍方伐.. (『合』6476)

점치기를, 왕은 용방을 공격할 것이다.

王勿惟龍方伐. (『合』6476)

왕은 용방을 공격하지 말라.

## (2) 虎

□□卜, □, 貞: 令望(乘)眾興其會(會)<sup>15</sup>虎方, 告于祖乙. 十一月. (『合』6667.1)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점치기를, 望(乘)과 興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祖乙에게 고합니다. 12월.

□□卜, □, 貞: 令望乘眾興其會(會)虎方, 告于大甲. 十一月. (『合』6667.4)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점치기를, 望乘과 興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

14) 高誘의 注를 보면, “주조는 주작이라고도 한다(朱鳥, 朱雀也).”라고 하였다. 黃暉, 『論衡校釋』(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0년, 150쪽.

15) 朱鳳瀚이 ‘會’를 ‘會’로 고석한 견해를 참고하였다. 朱鳳瀚, 「再讀殷墟卜辭中的‘衆’」, 『古文字與古代史』(第二輯), 台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09년.

다. 大甲에게 고합니다. 11월.

□□卜, □, 貞: 令望乘眾興會(會)虎方. 十一月. (『合』6667.5)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짐치기를, 望乘과 興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11월.

(3) 雀

乙巳卜, 爭, 貞: 雀弗其隻(獲)亘, 二告. (『合』6952正)

乙巳일에 균열을 내어 爭이 짐치기를, 雀은 亘을 포획할 수 없다. 두 번째 고하다.

癸丑卜, 賓, 貞: 于雀亭(墟). (『合』13515)

癸丑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짐치기를, 雀에 성을 축조할 것이다.

(4) 武

乙未卜, 賓, 貞: 以武芻. (『合』456正.7)

乙未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짐치기를, 武 지역의 사람을 거느리고 짐승 사육의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상 제시한 갑골문 용례에서 후대 五獸로 대표되는 동물 중,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龍·虎·雀·武라는 네 동물이 은상시기 邦國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대시기 토렘을 이용하여 방국을 명명하였다는 통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로 명명된 방국의 명칭과 五方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더욱이 五行에 배당된 각 동물의 선택 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서주 금문의 ‘五行’

앞서 제시한 『尙書·周書·洪範』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行 풀이에 근거하면, 西周시기 이미 水·火·木·金·土라는 五材를 내포한 五行 관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토된 西周 청동기에 나타난 명문 자료를 보면 아쉽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殷商시기와 西周시기는 탄생 배경과 지배층의 문화 차이가 엄연히 다르지만, 『論語·爲政』의 “주나라가 은나라 예를 인습하니 손익한 것을 알 수 있다(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西周시기로 넘어오며 직·간접적으로 은상시기의 문화를 영향 받은 듯하다. 이는 殷商 甲骨 卜辭의 五方의 발전된 형태를 보이는 西周 명문 자료의 내용을 근거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西周 초기, 중기, 말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청동기 명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方に 대한 용례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五行의 의미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大孟鼎(『集成』2837): “9월에 왕이 宗周에 있었다. 왕이 孟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孟! 크게 빛나는 文王께서는 天으로부터 大命을 받았다. 武王은 文王을 계승 받아 나라를 세우고, 감춰진 땅을 열고, 四方을 소유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佳{唯}九月, 王才{在}宗周, 令{命}孟, 王若曰: 孟! 不{丕}顯玟{文}王, 受天有大命{命}, 杜{在}域{武}王嗣玟{文}乍{作}邦, 闢{厥}匿, 匍{撫}有{佑}三{四}方, 吮{峻}正{厥}民).”

保尊(『集成』6003): “을묘, 왕이 保에게 殷 東國의 五侯를 잡으라고 명하여 이에 여섯 물품을 하사하여 保가 치하 받고, 물품을 하사 받아 父癸의 종묘를 위한 보배로운 제기를 만들었으며, 四方이 조우하여 왕과 회합하여 주를 돕기를 제사하였다. 2월 보름(乙卯, 王令保及殷東或{國}五{侯}戾{侯}, 征{誕}兄{朕}六{品}, 蔑曆{曆}于{于}保, 易{錫}賓, 用乍{作}父癸宗寶{鬲}彝, 邁于{于}三{四}方, 迨{會}王大祀, 祓{侑}于周, 才{在}二月既{璽}璽).”

大盂鼎 명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四方을 소유하고’라는 구절의 ‘四方’은 중원이라는 지배층이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단지 네 개의 방향으로 국한해 표현한 부분이다. 保尊의 명문 또한 四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여 지배층 이외의 공간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공간 관념은 갑골문에서 동·서·남·북이라는 일정한 범위를 증시한 지리적 영역의 인식이 파생되어 내려온 표현법으로 판단된다.

『後漢書·班彪列傳第三十上』에서 “五方에서 가장 특별하다(殊異乎五方).”라고 하여 李賢이 注를 보면, “五方은 四方과 중앙을 말한다(五方謂四方及中央也).”라는 풀이가 四方은 五方の 한 부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淮南子·原道訓』에서 “태고 때에 이황은 도의 근본을 얻어 중앙에 즉위하고 신을 따라 조화를 이루어 사방을 돌보았다(泰古二皇, 得道之柄, 立於中央, 神與化游, 以撫四方).”라고 하여 高誘의 注에서 “撫는 安이요, 四方은 天下를 말한다(撫, 安也. 四方, 謂之天下也).”와 『詩·周頌·執競』에서 “사방을 다스리다(奄有四方)”라고 하여 鄭玄의 箋에서 “사방이란, 천하를 말한다(四方, 謂天下也).”라는 풀이가 四方이란 지배층이 존재하는 공간인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통치권 내의 공간을 의미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陳夢家는 保尊의 명문 ‘殷東國의 五侯(殷東或(國)五侯(侯))’라는 구절은 蒲姑와 四國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四國은 반드시 네 개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sup>16)</sup>

다시 말하면, 갑골문에 나타난 동·서·남·북·중이라는 방위 개념의 五方에서 지배층이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단지 네 방향으로 함축 포괄하여 인식한 五方の 확대 형태로 볼 수 있다. 四方과 관련된 전래문헌 시경의 내용을 보면, 『詩經·商頌·殷武』: “상 나라의 도읍이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여 四方의 본보기로 다(高邑翼翼, 四方之極)”, 『大雅·文王之什·下武』: “천의 복록 받으니 四方에서 하례를 드리다(受天之祜, 四方來賀)”, 『大雅·蕩之什·常武』: “四方이 평정되니 서방이 와서 조공하네(四方既平, 徐方來庭)”, 『大雅·文王之什·棫樸』: “부지런한 우리 임금, 四方의 기강이 되다(勉勉我王, 綱紀四方)”, 『大雅·生民之什·卷阿』: “편안하고 단아한 군자는 四方의 본보기가 되네(豈弟君子, 四方爲則)”, 『大雅·生民之什·卷

16) 陳夢家,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2004년, 7쪽.

阿』: “편안하고 단아한 군자는 四方의 법도가 되네(豈弟君子, 四方爲綱)”, 『大雅·文王之什·皇矣』: “四方을 살피고 백성들의 고통을 구했다(監觀四方, 求民之莫)”라고 하여 명문의 용례와 유사하게 공간적인 부분을 五方 관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중앙과 사방으로 분리해 표현하였다. 여기서 四方은 방위사를 정치적 관점에 포함시켜 피지배층의 공간을 모두 아울러 지배층이 있는 공간으로 집중시키고 통치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중기 청동기 명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泉伯緘簋蓋(『集成』4302): “周王 정월 庚寅일에 周王이 말하였다. ‘泉伯緘아, 애초부터 네 선조는 周나라에 공로가 있고, 四方으로 영토를 개척하는데 보조하며 天命을 크게 보좌하였다.’(隹(唯)王正月, 辰才(在)庚寅, 王若曰: 泉白(伯)緘, 繇(繇)自乃且(祖)考有勳(庸)于周邦, 右(佑)用(鬪)三(四)方, 夔(助)膺(膺)天令(命))”

班簋(『集成』4341): “8월 初吉, 宗周에서 甲戌일에 王은 毛伯에게 虢城公의 직무를 이어받아 왕위를 보위하고 四方의 모범이 되며, 緜, 蜀, 巢 세 지역을 장악하도록 명하며 鸞鈴과 말 재갈을 하사함으로 책명을 마쳤다(隹(唯)八月初吉, 才(在)宗周, 甲戌, 王令(命)毛白(伯)夔(廢)虢(城)公服(服), 夔(屏)王立(位), 乍(作)三(四)方亟(極), 秉緜、蜀、巢, 令易(錫)鈴、鑿(勒), 咸).”

師匚簋(『集成』4342): “皇帝께서는 (周 왕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 周를 굽어 살펴 보우하시니, 四方의 백성까지 안락하고 안정되지 않음이 없다(隹(肆)皇帝亡(歎), 臨保我又(有)周, 孚(雩)三(四)方民, 亡不康靜(靖)).”

番生簋蓋(『集成』4326): “番生은 감히 선조의 위대한 큰 덕을 본 받지 아니할 수 없고, 대명을 거둬 완고하게 하여 왕위를 보좌하고, 밤낮으로 경건하게 덕을 탐구하며, 四方을 다스려 먼 곳과 가까운 곳의 나라를 안정시킨다(番生不敢弗帥井(型)皇且(祖)考不(丕)不(元)德, 用(譖)申(鬪)固(固)大令(命), 夔(屏)王立(位), 虔(夙)夙(夙)夜, 專(溥)求不替(潛)德, 用諫三(四)方, 夔(柔)遠能(夙)邇).”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서주초기 대우정 명문에서는 사방을 소유한다는 의미로 서술되었다면, 서주중기 청동기에서는 지배층이 존재하는 공간인 중앙으로부터 사방을 향해 모종의 행위가 전해지고, 은덕을 전달하며 온전히 다스린다는 의미로 서술되었다. 이 또한 명문의 四方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방향을 구분했다기보다는 四方을 이용하여 주위를 의미하고, 중앙을 중시하며 중앙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전래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尙書·堯典』에서 “따로 羲仲에게 명하여 嵎夷에 거주하게 하시니, 暘谷이라고 한다(分命羲仲, 宅嵎夷, 曰暘谷).”라고 하여 疏를 보면 “羲仲은 東方의 거주하는 민족의 일을 주관한다(羲仲掌此東方居民之事也).”라고 하였고, “다시 羲叔에게 명하여 南交에 거주하게 하였다(申命羲叔, 宅南交).”라고 하여 注를 보면 “요가 남방의 交趾를 보호하다(堯南撫交趾).”라고 하였으며,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따로 和仲에게 명하여 서쪽에 거주하게 하시니, 昧谷이라고 한다(分命和仲, 宅西, 曰昧谷).”라고 하였고, “거듭 和叔에게 명하여 朔方에 거주하게 하시니, 幽都라고 한다(申命和叔, 宅朔方, 曰幽都).”라고 하였으며, 疏를 보면 “釋訓에서 ‘朔은 북방이다(朔, 北方也).’라고 한다.”고 하여 지배층이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단지 동·서·남·북 네 방위로 함축해 중앙을 강조하고, 집권하는 공간을 모두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제시한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에 나타나는 용례 모두 五方이라는 공간적 구분을 토대로 서술되었고, 이러한 특징은 모두 갑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方에 대한 인식에서 발전된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주 말기 청동기 명문을 제시하고 부분적인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五祀鞮鐘(『集成』358): “文王은 大命을 받아 四方을 다스렸다. 소자인 나는 선왕을 계승하여 상하(天地)와 조화를 이루고, 왕의 귀한 보물을 만든다(明鬻文, 乃雁(膺)受大命(命), 匍(撫)右(有)三(四)方. 余小子肇嗣先王, 配上下, 乍(作)秬(厥)王大寶).”

速盤(『新收』757): “速이 말하였다. ‘위대한 나의 선조 單公께서는 위엄 있게 진

실로 덕을 널리 행하였다. 文王과 武王을 보좌하여 殷을 공격하고, 天으로부터 훌륭한 명을 받아 四方을 돌보고, 그 영토를 성실하게 통치하며 上帝와 조화를 이뤘다(述曰: 不(丕)顯朕(朕)皇高且(祖)單公, 赳(桓桓)克明(愨)孚(厥)德. 夾(鬻)召(召)文王武王達(達)殷, 雁(膺)受天魯令(命), 匍(撫)有三(四)方, 竝宅(厥)堊(勤)疆(疆)土, 用配上帝.)”

南宮乎鐘(『集成』00181): “선조 남궁, 아조 공중, 필부의 집안은 천자의 만년 무병장수와 四方을 영원히 보우하며 황천과 조화를 이루길 빕니다.(先且(祖)南公、亞且(祖)公仲、必父之家, 天子(其)萬年(贊)眉(壽), 吮(峻)永保三(四)方, 配皇天.)”

禹鼎(『集成』2833): “우가 이르기를, ‘크게 빛나고 위엄 있는 皇祖 穆公이 선왕들을 곁에서 보좌하며 四方을 안정시켰네.’(禹曰: 不(丕)顯赳(赳)且(祖)穆公, 克夾(鬻)紹先王, 奠三(四)方.)”

大克鼎(『集成』2836): “크게 빛나는 천자는 만년동안 무강하여 주나라를 보호하고 통치하였으며 오랫동안 四方을 보살폈다(不(丕)顯天子(天子)其(其)萬年無疆(疆), 保辭(父)周邦, 田(允)尹三(四)方.)”

鞮簋(『集成』4317): “나의 마음은 밝고 아름다워 사망에 미치게 하였다(鞮(致)朕心, 墜(施)于三(四)方.)”

師克盃(『集成』4467): “왕이 이르기를, ‘師克아. 크게 빛나는 문왕과 무왕의 大命을 받아 四方을 다스렸다(王若曰: 師克, 不(丕)顯文武, 雁(膺)受大令(命), 匍(撫)有三(四)方.)”

虢季子白盤(『集成』10173): “12년 정월 초하루 정해일, 虢季子白은 보배로운 반을 만들었다. 크게 빛나는 子白의 군대는 웅장하고 용맹하여 사망을 잘 관리했다

(佳{唯})十又二年正月初吉丁亥, 虢季子白乍{作}寶盤, 不{丕}顯子白, 𠄎{壯}武于戎工{功}, 經纓{雍}三{四}方.”

서주 청동기 명문의 용례를 종합해 보면, 앞서 언급한 水·火·木·金·土 즉, 다섯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도덕적·철학적 관점에서 서술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단지 중심 공간과 四方을 이용하여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모든 공간을 나타낸 五方的 발전된 형태가 서술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갑골 복사와 청동기 금문 모두 五行이나 五方に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은상시기부터 五方, 五種祭祀, 五臣 등 이미 다섯 형태로 구분하려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동·서·남·북·중이라는 형태 즉, 五方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설정하고 모종의 행위가 발생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부분에 근거한다면, 五行 본신의 형태가 본래 방위를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주시기 청동기 금문에서 지배층의 공간을 나타내는 중앙과 그 이외의 공간을 四方이라는 방위 표현을 사용하여 五方的 틀 안에 모든 공간을 대입하는 형태로 서술된 부분은 五行의 시원이 본래 방위 구분에서 형성되었음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념 아래 점차 사회 곳곳의 분야를 다섯 형태로 정리 배당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고, 동주시기에는 五行·五帝·五祀·五獸·五色·五味 등의 개념이 발생되었으며, 더욱이 철학적·도덕적 영역과 융화되어 사상·정치·경제·철학·천문·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적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3. ‘五行’의 의미 파생 과정 분석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주시기까지 영토적 관점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었다면, 동주시기 이후의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에서는 사회 여러 분야를 다섯 형태로 구분하여 배당하려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전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주시기의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에 기록된 五行의 발전된 의미를 검토

한 후, 최종적으로 五行의 기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먼저, 출처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行에 대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郭店<sup>17)</sup>『五行』1-4: 五行이란, ‘仁’이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덕의 행위’라고 하고,……‘義’가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덕의 행위’라고 하고,……‘禮’가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덕의 행위’라고 하고,……‘智’가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덕의 행위’라고 하고,……‘聖’이 내심에서 형성된 것을 ‘덕의 행위’라고 하고,……(五行: 慧(仁)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義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豐(禮)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智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聖型(形)於內胃(謂)之惠(德)之行……).

위 내용을 보면, 현재 익숙한 水·火·木·金·土와는 다른 형태의 仁·義·禮·智·聖이라는 다섯 방면의 인품 수양에 대한 단어를 ‘五行’으로 지칭하며 풀이 설명하였다. 이는 동주시기 사람의 덕목과 심성, 인품에 대한 관점이 증시되기 시작하며 발생한 형태인 동시에 사회적 의미로 발전된 五行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 준다. 계속해서 전래문헌의 五行과 관련된 용례 또한 살펴보도록 한다.

『逸周書·小開武解』: “나의 선친 문왕께서는 삼극을 순종하고 몸소 바르게 사방을 살피셨으며 五行을 따라 운용하였다.……五行은 첫째 흑색으로 水에 있고, 둘째 적색으로 火에 있고, 셋째 청색으로 木에 있고, 넷째 백색으로 金에 있고, 다섯째 황색으로 土에 있다(在我文考, 順明三極, 躬是四察, 循用五行, ……五行: 一黑位水, 二赤位火, 三蒼位木, 四白位金, 五黃位土).”

『管子·四時』: “동방을 星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봄이며, 그 기운은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은 木과 骨을 낳고, 그 덕은 기쁨으로 가득 차 만물을 시기에 맞게 나오게 한다. ……남방을 日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여름이며, 그 기운은 양이라고

17)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8년.

한다. 양은 (五行의) 火와 氣를 낳는다. 그 덕은 은택을 베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중양을 土라고 하는데, 토의 덕은 사시를 돕고, 바람과 비로 사시의 윤행을 도우며, 토기를 조절하여 힘을 이롭게 한다. 토는 피부와 살을 낳는다. 그 덕은 화평하고 고르며, 中正하고 사사로움이 없어 참으로 사시를 돕는다. ……서방을 辰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가을이며, 그 기운은 陰이라고 한다. 음은 (五行의) 金과 생물의 껍질(甲)을 낳는다. 그 덕은 근심하고 슬퍼함, 고요하고 바름, 장엄하고 화순함, 거처함에 감히 방탕하지 않음이다. ……북방을 月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겨울이며, 그 기운은 추위라고 한다. 추위는 (五行의) 水와 생물의 血을 낳는다. 그 덕은 순박하고 청초함, 온당한 위세, 자세하고 세밀함이다(東方曰星, 其時曰春. 其氣曰風. 風生木與骨, 其德喜羸, 而發出節時, ……南方曰日, 其時曰夏, 其氣曰陽, 陽生火與氣, 其德施舍修樂 ……中央曰土, 土德實輔四時, 入出以風雨, 節土益力, 土生皮膚, 其德和平用均, 中正無私. 實輔四時, ……西方曰辰, 其時曰秋, 其氣曰陰, 陰生金與甲, 其德憂哀, 靜正, 嚴順, 居不敢淫佚 ……北方曰月, 其時曰冬, 其氣曰寒, 寒生水與血, 其德淳越溫怒周密).”

『左傳』昭公29年: “그러므로 五行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있으니 이를 五官이라고 한다. 이 오관은 실제로 나란히 씨와 성을 받고, 작위를 받아 상공이 되었으며, (사후에는) 제사를 받는 귀한 신이 되어 사직과 오사의 제사되어 준봉을 받는다. 木正을 句芒이라고 하고, 火正을 祝融이라고 하고, 金正을 蓐收라고 하고, 水正을 玄冥이라고 하고, 土正을 后土라고 한다(故有五行之官, 是謂五官, 實列受氏姓, 封爲上公, 祀爲貴神, 社稷五祀, 是尊是奉, 木正曰句芒, 火正曰祝融, 金正曰蓐收, 水正曰玄冥, 土正曰后土).”

이상 예문을 통하여 殷商, 西周, 東周시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五行의 기본적인 체제와 제도 및 순환 체계가 상당 수준 정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管子·四時』의 내용에서 五方的 명칭과 함께 사계절의 성질을 풀이하고,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를 배당한 부분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다섯 형태로 정리 배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더욱이 위 제시한 전래문헌의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서술된 출토 죽간 자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淸華簡<sup>18)</sup> 『筮法』의



내용을 보면 占筮의 원리와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 죽간에서 다섯 요소를 나열해 서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清華簡 『筮法』: 동방은 목이다. 청색이다. 남방은 화다. 적색이다. 서방은 금이다. 백색이다. 북방은 수다. 흑색이다(東方也, 木也, 青色。[60] 南 [49] 方 [50] 也, [51] 火 [52] 也, [53] 赤 [50] 色 [51] 也。[52] 西方也, 金也, 白色。[42] 北 [49] 方 [50] 也 [51], 水 [52] 也, [53] 黑 [50] 色 [51] 也。[52] )。

위에서 제시한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의 용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방위를 중심으로 방위에 대표되는 관직·기운·물질·색깔 등을 배당하였다는 것이다. 단지, 청화간 내용의 특이한 부분으로 중앙에 대하여 언급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민대학 조용준은 清華簡 『筮法』과 『周易·說卦』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行의 형태를 비교해 清華簡 『筮法』에서 확인할 수 있는 卦位圖의 내용은 『周易』과 五行의 초기 단계 결합으로 여겼는데,<sup>19)</sup> 중앙이 언급되지 않은 청화간의 내용 또한 완전하지 않은 형태의 五行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검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 요소에 대한 허신의 『說文』<sup>20)</sup> 풀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水是, 고르다는 뜻이다. 北方의 五行이고, 여러 줄기의 물이 나란히 흐르고, 가운데에 미미한 양의 기운이 있는 것을 형상하였다(水, 準也。北方之行, 象衆水並流, 中有微陽之氣也)。

火는, 불이다. 南方의 五行이고, 불꽃을 내면서 타오른다. 상형자이다(火, 燬也。南方之行, 炎而上。象形)。

18) 李學勤, 『清華大學藏戰國竹簡(肆)』, 上海, 中西書局, 2013년.

19) 趙容俊, 「清華簡所見的陰陽」, 『東洋古典研究』第74輯, 서울, 동양고전학회, 2019년, 87쪽.

20) 『說文』은 『說文解字』의 약칭이다. [漢]許慎 撰; [宋]徐鉉 校定,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년.

木은, 내민다는 뜻이다. 땅을 뚫고 나서 자라나는 것으로 東方의 五行이다. 艸로 구성되었고, 아래는 뿌리를 형상하였다(木, 冒也. 冒地而生, 東方之行. 從艸, 下象其根).

金은, 오색의 금속을 의미한다. 그중에서 황색이 으뜸으로 오래 묻어 두어도 녹이 생기지 않고, 백 번을 제련해도 가벼워지지 않으며 마음대로 바꾸어도 어긋나지 않는다. 西方의 五行이다. 흙에서 생겨나므로 土로 구성되었다. 좌우의 점은 금이 흙속에 있는 모양을 형상하였다. 今은 발음을 나타낸다(金, 五色金也. 黃爲之長, 久蘊不生衣, 百鍊不輕, 從革不違. 西方之行, 生於土, 從土. 左右注, 象金在土中形, 今聲).

土는, 땅이 만물을 내어 성장시키는 것이다. 二은 땅 위와 땅 속을 형상하였다. 丨은 만물이 나오는 형태이다(土, 地之吐生物者也. 二象地之上, 地之中. 丨物出形也).

이상 언급한 『說文』 기록 또한 五行과 관련된 다른 문헌 자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五方과 五材를 함께 묶어 풀이하였고, 이는 水·火·木·金·土라는 요소가 다섯 방위를 각각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자연의 이치와 사회 구조를 다섯 형태로 정교히 분류하여 귀납한 문헌으로 『呂氏春秋』 十二紀와 『淮南子·天文訓』의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 『呂氏春秋』 十二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에는 오음이 앞에서 연주되어도 들리지 않는다(心不樂, 五音在前弗聽).’,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에는 오색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目之情欲色, 心弗樂, 五色在前弗視).’,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에는 오미가 눈앞에 있어도 먹지 않는다(心弗樂, 五味在前弗食).’라고 하여 五音은 宮·商·角·徵·羽, 五色은 靑·赤·黃·白·黑, 五味는 단 것·신 것·매운 것·쓴 것·짠 것 등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五行 구조에 배당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四時를 다섯 형태로 나누고 모든 제도와 만사 만물을 이 곳에 배당하는 형식으로 상세히 구분하였다. 표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呂氏春秋』 十二紀의 五行 분류표

五行	목	화	토	금	수
계절	春	夏	長夏	秋	冬
계절의 첫 달	孟春	孟夏		夢秋	孟冬
해의 위치	營室	畢		翼	尾
해의 저녁 위치	參의 중앙	翼의 중앙		斗의 중앙	危의 중앙
해의 아침 위치	尾의 중앙	婺女의 중앙		畢의 중앙	七星의 중앙
천간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帝	太皞	炎帝	黃帝	少皞	顓頊
神	句芒	祝融	后土	蓐收	玄冥
蟲	鱗	羽	倮	毛	介
音	角	徵	宮	商	羽
律	太蔟	仲呂	黃鐘의 宮	夷則	應鐘
숫자	8	7	5	9	6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냄새	누린내	탄내	향내	비린내	썩은내
제사	戶	灶	中霤	門	行
제물	비장	허과	염통	간	콩팥
천자의 거처	靑陽 좌측(동쪽)	明堂 좌측(동쪽)	太廟의 太室	總章의 왼쪽	玄堂의 왼쪽
천자의 수레	鸞輅	朱輅	大輅	戎路	玄輅
천자의 수레 말	蒼龍	赤騮	黃駟	白駱	鐵驪
천자의 깃발	푸른 깃발	붉은 깃발	누런 깃발	흰 깃발	검은 깃발
천자의 옷	푸른색 옷	붉은색 옷	누런 옷	흰 옷	검은 옷
천자의 패옥	청옥	적옥	황옥	백옥	흑옥
천자의 주식	보리밥, 양고기	콩밥, 닭고기		삼[麻], 개고기	기장, 돼지고기
천자의 그릇	통풍이 잘 되는 그릇	높으면서 큰 그릇		모나고 깊은 그릇	항아리 형태의 입구가 작은 그릇

『표2』 『淮南子·天文訓』

계절	春	夏		秋	冬
방위	동방	남방	중앙	서방	북방
五行	木	火	土	金	水
帝	太皞	炎帝	皇帝	少昊	顓頊
보좌	句芒	朱明	後土	蓐收	玄冥
神	歲星	熒惑	鎮星	太白	辰星
五獸	蒼龍	朱鳥	黃龍	白虎	玄武
音	角	徵	宮	商	羽
日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이상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과 인간계, 자연계 등의 모든 사물을 다섯 형태로 배당하려는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五行과 사시 운행의 관계를 완벽하게 맞물릴 수 없는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언급할 만한 부분으로 동주시기 이전 서주시기 청동기 금문에서 오색을 이용한 듯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同篇(『集成』4271)의 명문을 보면, ‘麗水로부터 동쪽으로는 黃河에 이르고, 그 북쪽으로는 玄水에 이른다(自麗東至于河。曄(厥)逆(朔)致(至)于玄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玄水の 玄은 검은색을 의미하고, 玄水가 북방에 위치한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서주시기에 사물을 다섯 형태의 방위로 배당하는 발전된 방식을 운용하였고, 이에 따라 색깔을 이용하여 영토를 표시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용례의 부족으로 새로운 출토 자료의 발굴과 심도 있는 연구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갑골문과 금문, 동주시기 문헌 자료에 근거해 정리하면, 五行은 최초 중앙과 사방을 의미하는 지리적인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채택된 방식으로 최초 동방·서방·남방·북방·중앙이라는 방위를 구분하는 역할이 중심을 이루다가 그 방위에 대표되고 상징되는 재료·색깔·동물·신·관직·德 등이 배당되었고, 더욱이 세상 만물과 도덕·정신·철학·천문 등의 범위까지 모두 다섯 형태로 배당하려는 발전된 형식이 발생되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은상 시기는 만물유생론을 믿는 시기로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뤄 만물을 기원한다는 사상은 재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左傳』襄公27년에서 ‘天이 五材를 내고, 백성들은 아울러 사용하니(天生五材, 民並用之)’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지만, 五材의 金의 경우 은상시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용품이 될 수 없어 당시 사회 환경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 하다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21)</sup> 다시 말하면, 서주 이전에는 水·火·木·金·土라는 五材와 관련된 내용은 살펴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서주 이전과 이후에 사용된 五行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농경과 전쟁, 제사가 중시되었던 고대시기에 중심과 사방이라는 영토적 관념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방위·영토·영역을 구분하는 五方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萬象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五材를 기반한 五行 또한 형성되어 각 방위에 배당되었으며, 세상 만물과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신·철학·도덕적 측면의 모든 영역까지 다섯 형태로 구분해 배당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첨언하면, 앞 절에서 제시한 갑골문(『습』30391.2)의 용례 ‘帝의 五臣(帝五臣正)’을 『左傳』 昭公17年の ‘오치는 다섯 가지 공예를 맡은 장관(五雉爲五工正)’이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五方을 담당하는 관직명을 의미한다고 보았듯이 앞서 제시되었던 『左傳』 昭公29年에서 蔡墨이 魏獻子의 물음에 응답할 때 확인할 수 있는 ‘木正, 火正, 金正, 水正, 土正’ 또한 각 방위에 배당된 관직을 상징하여 설명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새클러(Sackler) 미술관에 소장된 전국시기 子彈庫 楚帛書 파편에서 楚나라 月名을 기록한 同心圓으로 구성된 그림 아래 ‘木에 거주하면 어떠한가(居木如何)’, ‘水에 거주하면 어떠한가(居水如何)’, ‘土에 거주하면 어떠한가(居土如何)’<sup>22)</sup>와 함께 각각 색깔·물품을 조합한 사실에 근거해 보아도 五材를 방위에 배당하였고, 五材를 이용하여 방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리적 영역을 구분할 때 五材가 동·서·남·북·중이라는 방위사를 대신해 구분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五材를 이용한 五行 즉,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가 끊임없이 순환·반복하며 인간계와 자연계의 흥망을 주재한다는 오행설은 구성 요소들의 갖고 있는 물질적 속성을 이용한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五行의 원시 형태와

21) 龐朴, 「陰陽五行探源」, 『中國社會科學』第3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84년, 80쪽.

22) 李零, 「讀幾種出土發現的選擇類古書」, 『簡帛研究』(第三輯),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8년, 97쪽.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진다. 殷商시기 갑골문과 西周 금문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해 보면, 五行은 五方이라는 공간 방위를 중시하는 영토적 관점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동주시기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영토적 관점에 사시를 접목하여 인간계와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다섯 형태로 정리 배당하여 설명하게 된 동시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활용 범위가 추상적인 만물 상생론이라는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해석으로 변천이 이뤄진 듯하다.

#### 4. 결론

先秦 시기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五行의 초기 형태와 함께 萬象을 다섯 가지로 구분 배당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풀이한 형태를 살펴보았다. 통상적으로 五行은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가 체계적으로 서로 맞물려 순환·반복하며 우주 만물의 상호 관계 이치·변화·원리를 풀이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殷商시기 동·서·남·북·중이라는 공간적이고 영토적 관점의 五方이 중심되어 방위가 구분되었고, 각 방위를 중심으로 五種祭祀·五臣 등이 조직되는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점차 후대로 오며 이를 바탕으로 四時와 접목하여 자연의 질서를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방위에 만물을 배당하여 풀이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동주시기로 넘어오면서 철학적·도덕적 형태로 발전되어 특정 정보를 제공하려는 五行이 전성케 되었고, 만물 상생론과 같은 사상적 의미가 형성되었으며, 五行의 배당 및 순환 또한 더욱 체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五行의 다양한 의미 확대는 한편으로 五行 본연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과정이었다고 사료된다.

고대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五行의 기원 탐색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지리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 五行의 원시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갑골문, 금문에서는 대부분 영토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된 부분과 관자, 회남자, 여씨춘추 등의 전래문헌에서 동·서·남·북·중이라는 각 방위를 토대로 만물을 체계적으로 배당한 형태의 자료

가 최초 영토적 관점에서 五行이 기인하였다는 입증 증거가 된다. 이 밖에도 갑골 복사와 금문 자료에서 水·火·木·金·土라는 五材를 기반한 五行을 살펴볼 수 없는 부분 또한 이상 논리의 간과할 수 없는 보충 자료로 판단되고, 이에 서주 이전 시기와 이후의 五行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랐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정리하면, 농업과 제사, 전쟁을 중시하는 殷商시기에 五行은 최초 동·서·남·북·중이라는 공간적 구분을 위해 형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五種祭祀, 五臣 등의 의미가 조직되었으며, 차츰 체계적으로 萬象을 다섯으로 구성하는 발전 변화된 형태로 파생된 듯하다.

마지막으로 본고 논증 과정에서 설득력이 미흡한 부분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기대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보충하도록 한다.

## 【參考文獻】

- 陳夢家,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2004.
- 陳佩芬, 『夏商周青銅器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日]池田知久 著, 王啓發 譯, 『馬王堆漢墓帛書五行研究』, 北京, 線裝書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董蓮池, 『新金文編』, 北京, 作家出版社, 2011.
- 董作賓, 『殷墟文字甲編』, 台北,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48.
- 董作賓, 『殷墟文字乙編』, 台北,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48.
- [宋]范曄 撰, [唐]李賢 等注,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5.
- 方述鑫, 林小安, 常正光, 彭裕商編著, 『甲骨金文字典』, 成都, 巴蜀書社, 1993.
- 高明·涂白奎, 『古文字類編(增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 北京, 中華書局, 1982.
- 洪家義, 『金文選注釋』,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8.
- 黃德寬主編, 『古文字譜系書證(全四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黃暉, 『論衡校釋』(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0.
- 黃懷信, 『逸周書校補注譯』,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1996.
- 黃天樹, 『說殷墟甲骨文中的方位詞』, 『黃天樹古文字論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6.
- 胡厚宣, 『論五方觀念及『中國』稱謂之起源』, 『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 濟南, 齊魯大學國學研究所, 1944.
- 胡厚宣, 『殷卜辭中的上帝和王帝(上)』, 『歷史研究』第9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59.
- 胡厚宣, 『甲骨文合集釋文』,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
- [漢]賈誼撰; 閻振益, 鍾夏校注, 『新書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0.
-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8.
- 김경일, 『殷代 갑골문을 통한 ‘五行’의 문화적 기원 연구』, 『中語中文學』第38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 김경일, 『殷代 ‘出組’ 5種祭祀 관련 갑골문 텍스트를 통한 유교 조상숭배 문화의 기원 연구』, 『中語中文學』第41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7.
- 李立新, 『甲骨文中所見祭名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003.
- 李零, 『譚幾種出土發現的選擇類古書』, 『簡帛研究』(第三輯),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8.



- 李學勤,『清華大學藏戰國竹簡(肆)』,上海,中西書局,2013.
- [清]梁啟超,『梁啟超全集』,北京,北京出版社,1999.
- 林義光,『文源』,上海,中西書局,2012.
- 林滢,『古文字研究簡論』,吉林,吉林大學出版社,1986.
- 劉安 編者,安吉煥 編譯,『淮南子』,서울,명문당,2013.
- 劉釗等編纂,『新甲骨文編』,福州,福建人民出版社,2014.
-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三』,北京,文物出版社,1988.
- 龐朴,「陰陽五行探源」,『中國社會科學』第3期,北京,中國社會科學院,1984.
- 彭華,『陰陽五行研究(先秦篇)』,上海,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2004.
- 秦永龍,『西周金文選注』,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2.
- 裘錫圭,『文字學概要(修訂本)』,北京,商務印書館,2013.
- 上海古籍出版社編,『十三經注疏』,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7.
- [清]孫星衍撰 陳抗,盛冬鈴點校,『尚書今古文注疏』,北京,中華書局,1986.
- 唐蘭,『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中華書局,1986.
- 王輝,『商周金文』,北京,文物出版社,2006.
- 王進鋒,「卜辭“五臣”與《史記·封禪書》“九臣”解」,『考古與文物』第6期,西安,陝西省考古研究所,2012.
- [漢]許慎 撰,[宋]徐鉉 校定,『說文解字』,北京,中華書局,1963.
- [漢]許慎 撰,[清]段玉裁注,『說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
- 徐中舒,『甲骨文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1989.
- 양동숙,『갑골문자전 갑골문해독』,서울,월간 서예문인화,2007.
- 張玉清,「試論五行起源於上古立杆測影特殊點位的軌迹周期」,『漢字文化』第16期,北京,北京國際漢字研究會,2019.
- 趙容俊,「清華簡所見的陰陽」,『東洋古典研究』第74輯,서울,동양고전학회,2019.
- 周法高,『金文詁林』,香港,香港中文大學,1975.
- 朱鳳瀚,「再讀殷墟卜辭中的衆」,『古文字與古代史』(第二輯),台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2009.

## 【국문초록】

五行의 ‘五’는 보편적으로 다섯 가지 물질 즉, 자연 생태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水·火·木·金·土를 말하고, 고대시기에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통하여 자연현상과 인간사의 심오한 작용을 풀이하고 설명하였다.

五行은 동아시아 문화의 골간으로 발전 역사는 매우 유구하다. 商代를 대표하는 갑골문에서 이미 五行에 대한 기초 인식을 살펴볼 수 있고, 周代 청동기 명문에서 또한 五行과 관련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五行이 언제부터 출현했고, 최초 어떠한 의미에서 시작했는지 모호하여 현재까지도 五行의 원류와 변천, 作者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이에 五行의 최초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경로와 형태로 점차 발전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五行의 발달과 오랜 기간 의미가 변화하며 안착된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고대시기 五行의 전체적인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의미 근원에 대하여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전래문헌을 중심으로 五行 연구를 진행한 틀을 벗어나 출토된 선진시기 문헌 즉, 비교적 이른 시기의 상대를 대표하는 갑골문과 서주시기의 금문을 집중적으로 수집 검색하여 용례를 살펴 본 동시에 동주시기 이후의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을 참고 보충하여 五行의 골간과 구축, 변천 과정을 추적 분석하였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五材를 이용한 五行 즉,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가지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반복하며 인간계와 자연계의 흥망을 주재한다는 五行설은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五行의 원시 형태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은상시기 갑골문과 서주 금문 자료에 근거하면, 五行은 五方이라는 공간방위를 중시하는 영토적 관점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며, 동주시기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영토적 관점에 사시를 접목하여 인간계와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다섯 형태로 정리 배당하여 설명하게 된 동시에 점차 추상적인 만물 상생론이라는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해석의 변천이 이뤄졌다. 따라서 최초 五行은 지리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었다는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같은 관점을 토대로 차츰 萬象을 체계적으로 다섯 형태에 배당 구성하는 변천이 이뤄진 듯하다.

[Abstract]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Five Elements(五行)  
through excavated literature

-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cavated oracle bone  
scripts and bronze scripts

Park, Seong-woo · Moon, Chi-ung

Five Elements (五行) are composed of Water (水), Fire (火), Wood (木), Metal (金), and Earth (土), which are a fivefold conceptual scheme that ancient east asia several fields used to explain a core elements, cardinal virtues, or territory.

The use of Five Elements began in ancient times and the history of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is very long. We often find cases of the use Five Elements in the excavated oracle bone scripts and bronze scripts. However, it is unclear when Five Elements appeared and what it meant, and recent researches are still being conducted on the origins, original meanings and changes.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the overall formation process of Five Elements in ancient times in detail and eventually conducted the study to track the meaning of Five Elemen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actively utilized the literature excavated from the former-Qin dynasty period rather than the existing limited literature-driven analysis.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examples of oracle bone scripts from the Shang Dynasty and bronze scripts from Western Zhou Dynasty. In addition, the excavation data and traditional literature after Eastern Zhou Dynasty were supplemented to trace and analyze the process of the transition, establishment, and transition of Five Elements.

From the trace and analyze of these literature, we can conclude that Five Element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such as the relationship interpretations using the properties of elements and the utilization of five directions and their areas. The concepts using the properties of elements are mutual generation (相生) which is ordered of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and mutual overcoming (相克) ordered of Wood, Earth, Water, Fire, and Metal. The mutual

generation and mutual overcoming are concepts created in later generations, not in the origin of Five Elements. The origin and order of Five Elements begins with directions and their areas, in which order Water, Fire, Wood, Metal and Earth.

[Key words] excavated literature, traditional literature, five elements, oracle bone scripts, and bronze scripts

[주 제 어] 출토문헌, 전래문헌, 五行, 갑골문, 금문

투 고 일 : 2021. 08. 10

심 사 일 : 2021. 08. 11 ~ 09. 03

계재확정일 : 2021. 09. 07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여부(예/아니오) : 아니오

